

나주시 2500억 들여 음성권 개발

2023년 음성권 마스터플랜 수립 원도심 청년 창업거리 조성 등 역사·문화·생태·시설 개발 28건 도보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나주시가 원도심 음성권 활성화 사업에 2023년 까지 2500억원을 투입한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천년고도 목사(牧使) 고을 중심지의 역사적 정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8개 분야의 음성권 개발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호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둔 통합적 관점의 '음성권 마스터플랜'에 기반해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사업 부분으로 나눠 추진한다.

나주음성권의 산재한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하나로 엮어 '추억을 담아가는 박물관도시 나주 목사고을'을 비전으로 도심권 도보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일상 생활권과 접근성이 뛰어난 다양한 역사문화, 생태자원을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원도심 청년 창업거리 조성, 나주목 향정 복원, 배전선로 지중화, 나주읍성·죽림동 도시재생,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금성산 국립습지원 기반시설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중앙로 포장공사 등 모두 28개 사업이다.

'중앙로(신동약국-중앙로사거리 구간) 포장공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금남점 개장' 등 2건의 사업이 완료됐다.



박봉순 나주부시장(가운데)이 지난 4일 음성권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읍성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서성문-나주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음성권 전통한옥마을 경관정비사업' 등은 연내 마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9월 음성권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 최근 결과 보고회를 연 데 이어 이날 현장 점검을 했다.

박봉순 나주부시장은 "음성권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보관광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주민들은 일상에서 변화된 환경을 체감하고, 관광객은 체류 시간 증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화순군의회 제공>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 반대...동반 부실”

화순 등 전국 폐광지 단체장 성명

화순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했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근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당장 부도가 나고 이상하지 않은 부실 기관”이라며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되면 동반 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두 기관의 통합은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자동 폐기된 법안이 왜 또 다시 발의돼 상임위에 상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법안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발의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강원도 내 폐광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다시 발의

했다. 협의회는 폐광이 있는 화순군과 강원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이 참여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한다”며 통합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화순군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 만장일치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화순군의회는 성명에서 “광해관리공단은 광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등 폐광 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 및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본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4000억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시,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 상환으로 총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순군에서도 ㈜키즈라라 폐광대체법인 지원 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 황룡강 26ha 유채밭 조성

장성군은 내년 봄 개화를 목표로 옛 공설운동장 인근 농지 26ha에 대규모 유채밭 경관단지를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채밭 단지 조성은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이나 준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작물 재배를 마친 경작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경관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장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내년에 총 12개 지구 121ha에 유채와 헤어리베치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 실적(6개 지구 56.2ha)보다 140% 가량 증대됐다.

특히 황룡강과 인접한 옛 공설운동장 인근에 조성될 유채밭 경관단지가 주목받는다.

이 곳은 장성군이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황룡강 노란꽃창포 단지,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황미르랜드 노란예술센터와 함께 황룡강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채밭 개화 시기가 봄 축제인 '장성 황룡강 흥길동무 꽃길축제' 기간과 맞물리면서 관광객 방문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농어촌공사 농촌·농업 발전 협약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

장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 활성화와 푸드플랜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장성지역 개발과 농촌 활성화 계획 등의 마스터 플랜 수립, 농업생산 기반시설 운영, 도농 상생 사업 등에 협력한다.

푸드플랜 구축의 핵심으로는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부지 제공을, 장성군은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푸드플랜이란 생산·소비·안정·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장성군은 2017년에는 농어촌공사 협조로 장성호둘레에 수변길을 조성했다. 이듬해에는 옐로우출렁다리를, 올해는 황금빛출렁다리를 잇달아 개통했다.

장성호 수변길은 주말에 평균 1만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수변길 입구에서 상품권 교환제를 시행하고, 지역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수변길마켓을 운영해 상권 살



유두석(오른쪽) 장성군수와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이 지난 4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농촌 활성화와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리기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연계 중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어촌공사와 협약이 장성군 농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 에코하이테크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담양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 사업에 에코하이테크담양산업단지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에코하이테크산단에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는 총 사업비 41억원(국비 28억, 지방비 13억)이 투입돼 문화프로그램 운영장, 체육시설, 편의점, 외국인근로자 지원공간 등을 구축한다. 준공은 2022년이 목표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노후 산단과 특화형 산단에만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 및 일반 산단으로 확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자들의 복지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 인구 유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